



조간 제 8067 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4월 17일 금요일 (음력 3월 1일)

‘통합의 몫’ 20조...산업·기업유치에 투자 집중해야

전남·광주, ‘20조 시민공동포럼’...기업유치 전담반 병행 시민·정책위원 813명 참여...첨단산업 등 67건 안건 접수 행정통합 지원금 활용 공론화...시민 참여 기반 정책 설계

전남도와 광주시가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통합 지원금 활용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화 작업과 함께 대규모 기업 유치 전략을 병행 추진하며 지역 성장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16일 ‘20조 시민공동체 포럼’ 운영을 통해 정부 행정통합 지원금 20조 원의 활용 방향을 공론화하고, 통합특별시 미래를 이끌 핵심 프로젝트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시에 ‘기업유치 특별전담반’을 중심으로 앵커기업 유치 활동도 본격화하고 있다.

‘20조 시민공동체 포럼’은 행정통합 지원금의 사용 방향을 시민 참여 방식으로 설계

하는 정책 플랫폼이다. 320만 통합특별시 주민이 직접 지역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고 재정 운용 과정까지 점검하는 구조로, ‘시민 주권 재정’ 실현 장구로 운영된다.

지난 13일 기준 포럼에는 총 813명이 참여했다. 시민위원 405명과 정책위원 408명으로 구성됐으며, 미래첨단산업 육성, 복지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 교육 혁신 등 총 67건의 정책 안건이 접수됐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추가 참여 확대와 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해 실·국 단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포럼에서 도출된 안건은 향후 통합특별

시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 사업화 여부가 검토될 전망이다. 특히 대규모 재정 투입되는 만큼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정책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기업유치 특별전담반’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 기반 확대를 위한 투자 유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의 지방 직접 투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지역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데 대응한 조치다.

전담반은 전남·광주 전역을 4대 산업 발전 중심 구조로 재편하는 이른바 ‘Y4-노믹스’

구상을 토대로 앵커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 인구를 400만 규모로 확대하는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기업 유치는 대상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뒤 실·국장 중심으로 전방위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월 25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부지사와 전략산업국장 주제 회의를 이어가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3월 25일에는 전남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사업 추진 방향과 협조 사항을 설명하는 등 정치권과의 협력도 병행했다.

또 기업의 투자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영상과 산업단지 개발 구상 등을 담은 디지털 브로슈어 제작도 추진 중이다. 전남의 입지와 산업 여건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자료로, 오는 5월 초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실·국별로 분야별 앵커기업을 발굴하고,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동시에 시민 참여 기반 정책 설계와 기업 투자 유치를 연계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민주당 구례군수 후보에 장길선 ‘이번’ 영광 장세일·장흥 김성 후보 최종 선출

순천 손훈모·담양 박종원

6·3지방선거 D-47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개 시군의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17개 지역의 후보가 확정됐다. ▶관련기사 2·8면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순천·구례·담양·영광·장흥 등 5곳의 기초단체장 결선 투표 결과와 무안·신안 등 2곳의 분경선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순천은 손훈모 후보가 오하근 후보를 꺾고 무소속인 노관규 시정과 맞붙게 됐다. 구례에서는 구례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장길선 후보가 현역인 김순호 후보를 꺾고 본선에 진출했다.

전남지역에서 현직 단체장이 경선에서 패배한 것은 합평에 이어 두 번째다.

장 후보는 “이번 경선은 군민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기대와 선거문화 개혁 열망이 담긴 결과다”면서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인구 3만시대를 열고 군민 모두가 잘사

는 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례군수 선거는 민주당 장길선 후보와 조국혁신당 이창호 후보, 무소속 정양조·정현택·정택균 후보들과 경쟁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담양에서는 박종원 후보가 이규현 후보를 이겼다.

영광에서는 현역인 장세일 후보가 김혜영 후보를 이겼고, 장흥에서도 현역 김성 후보가 박태수 후보를 누르고 후보로 확정됐다.

영광군수 선거는 민주당 장 후보와 조국혁신당 정원식 후보, 진보당 이석하 후보, 무소속 김한규·오기원 후보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장흥군수 선거는 민주당 김 후보와 조국혁신당 사순문 후보 간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완도와 무안은 과반 득표자가 없어 상위 2명이 결선을 치르게 됐다.

완도에서는 우홍섭 후보와 지영배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고 무안에서는 현역인 김산 후보와 나광국 후보가 결선을 치른다.

경선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16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에서 열린 ‘세월호 목포 기억식’에서 참석자들이 추모 메시지를 적은 노란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려 보내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한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 304명이 사망했다. 세월호의 인양작업은 2017년 4월 11일 완료됐으나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등이 주요과제로 남아 있다. ▶관련기사 8·10·19면

김민석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정부 총력 지원”

대통령 지시 이틀 만에 총리가 여수 개도 부행사장 찾아 정부-지자체 협력 강화·준비상황 종합점검 관리 강화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과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지 이틀 만에 총리가 현장을 찾으면서, 박람회 준비가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로 본격 전환되는 흐름이다.

전남도와 여수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6일 여수엑스포기념관 그랜드홀에서 김민석 총리와 함께 준비상황 보고회를 열고, 부행사장인 화정면 개도 일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개막을 140여 일 앞두고 공정과 운영 준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행사장 조성 상황과 관람객 수용 여건, 교통·편의시설 구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 총리는 개도 부행사장에서 심어준 문화센터 조성사업과 교통·주차, 편의시설 구축 상황을 직접 살피고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특히 선거와 단체장 부재 등 행정 여건 변화 속에서도 준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한대행 체제가 실무를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차원의 추가 점검을 예고하며 필요한 지원과 보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정부가 현장 점검과 후속 조치를 동시에 예고하면서, 박람회 준비 과정에 대한 관리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면서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18@gwangnam.co.kr

토·일 신문 쉽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에서 계속



“떨감처럼 다 태워야 되겠습니까?”

내가 버린 담배꽂초와 무분별한 취사가 소중한 산림을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 성냥, 라이터는 두고가고!
- 취사대신 도시락을 즐기고!
- 개방된 등산로를 이용!

산불예방! 녹색미래를 지키는 행복한 습관입니다



산불방지 행동요령 및 자세한 QR코드

